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 수원 소식 ::

류주선 | 경인일보 기자

『제5회 수원 화성국제연극제』

『제5회 수원 화성국제연극제』가 지난 6월 1일부터 열흘 동안 세계문화유산 화성(華城) 일원과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수원 청소년문화센터 등 실내외 공간에서 펼쳐졌다. 화성축성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997년 처음 열린 이래 이 행사는 매년 자연과 성, 인간을 테마로 열리고 있는 연극 페스티벌이다.

올해는 전통에 뿌리박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작품, 해외 문화를 주체적 시각과 방법으로 수용한 작품, 독특한 스타일의 작품을 소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외국 작품으로는 HOBT와 한국 목토퍼포먼스그룹이 합작한 <마고 *Mago*>, 호주 트로픽 라인 극단의 <마틸다의 여인들>, 일본 쿠 나우카 극단의 <메디아>, 이탈리아 테아트로 도찌의 <여관집 주인 아가씨> 등 모두 4개가 초청돼 공연했다. 국내에서는 연희단거리패의 <햄릿>, 경기도립극단 <효녀 무사 바리>, 전주시립극단 <광대들의 학교>, 연극집단 뮈토스 <난 사랑할 수 없어!>, 극단 촌벽 <취선록>, 작은신화 <맥베드, *The Show*> 그리고 극단 성의 <이(爾)> 등이 장안공원 특설무대와 화성행궁,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수원 청소년문화센터에



지난 6월 개최된 『제5회 국제연극제』의 개막 공연작 <마고 *Mago*>



연희단거리패의 <햄릿 *Hamlet*>



일본 쿠 나우가 극단의 <메디아 *Medea*>

올려졌다.

이중 가장 관심을 끈 연극은 한미합작 <마고>와 일본의 <메디아>, 한국 연희단거리패의 <햄릿> 등 세 작품이었다. 개막공연으로 장안공원 특설무대에 올려진 <마고>는 한민족 개벽신화이자 창세신화인 마고신화를 소재로 생명 존중과 만물평등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작품이다. 우주의 탄생과 낙원, 유혹과 파괴, 희생제의를 통한 회복과정을 엮어갔다. 야외무대(장안공원)의 장점을 살려 환경연극적 요소를 가미하고 거대한 인형을 사용, 주제 부각과 관심끌기에 성공적 요소로 작용했다.

<메디아>는 그리스신화를 일본 메이지유신 시대로 가져가 재가공한 작품이다. 주인공 메디아가 한국여성으로 설정돼 있어 공연 전부터 주목을 받았다. 극중 극 형태인 이 작품은 그리스인 이아손이 소아시아 출신 메디아와 결혼하면서 발생하는 비극을 그리스인의 콤플렉스로 풀어낸다. 그리고, 이는 다시 일본이 한국에 대해 갖는 심리적 부담으로 은유된다. 서로 이해 부족과 두려움이 몰고오는 비극은 한일관계에 대해 의미있는 메시지를 던졌다. 또 극을 감상하던 권력자들의 시중을 들던 게이샤(기생)들이 마지막 부분에서 기모노를 벗어버리는 장면은 여운을 남겼다.

〈메디아〉는 그리스 비극을 일본적으로 잘 소화해낸 개성적인 연출이 돋보였으나 간략히 줄거리 자막처리만 했을 뿐 대사를 전혀 몰라 배우의 좋은 연기에도 불구하고 집중도가 떨어졌다. 이 공연은 또 일제가 파괴한 화성행궁을 무대로 한 '첫' 공연인데다 교과서 왜곡사건이 다시 불거진 시점에서 열려 일부 시민들의 반발을 샀으나 별다른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연희단거리패의 <햄릿>은 구성과 각색이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점은 특히 지역 극단과 비교되는 부분이었는데, 연출력(이윤택)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으며 공감대를 넓혔다.

이밖에 스텀프, 극단 사다리 마임, 밀물무용단, 김영실무용단, 마임이스트 김봉석 강정균, 미술인 황민수가 거리공연을 열어 기간 내내 다채로운 축제를 꾸몄고 인형 · 마스크 제작과정 워크숍, 학술대회도 병행됐다.

올해 행사는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수준이 향상됐고, 풍성하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반시민을 향한 효과적 홍보, 외국어 대사 전달, 축제 분위기를 어떻게 고조할 것인가 등은 앞으로 좀더 고민해야 할 과제로 남겨둔 채 폐막됐다.

:: 충북 소식 ::

이 현 숙 | 충북일보 기자

『제26회 충북미술대전』

충북미술협회가 주최한 『제26회 충북미술대전』에서 영예의 대상은 한국화에 하은미의 <2001 설레임>, 양화에 류법규의 <빛-생명>, 공예에 유택근의 <조명등>, 사진에 박종열의 <*Revelation*>, 건축에 석재영 외 1명의 <*visual communication*>, 서예에 임숙희의 <상건선생시숙 왕창령은거>가 각각 차지했다.

우수상은 한국화에 유필상의 <겨울이야기>, 양화에 권진수의 <혼돈속으로>, 조소에 이영정의 <의

식류>, 사진에 주충식의 <자비의 상>, 건축에 김수정 외 2명의 <길>, 서예에 권지민의 <오륜가 중에서>, 홍지민의 <고운선생시>가 각각 차지했다. 이번 미술대전에는 한국화 87점, 양화 68점, 조소 10점, 공예 37점, 건축 75점, 사진 106점, 서예 252점 등 총 689점이 응모해 총 271점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

김봉구(이화여대) 심사위원장은 "올 충북미술대전은 전반적으로 작품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각 부문별 수준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작품의 질이 고르게 평준화하는 공모전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초대작가상은 장부남(서양화)이, 추천작가상은 김정순(조소)이 각각 선정됐다.

입상작 전시는 6월 4일부터 14일까지 청주 예술의전당 전관, 초대 추천작가 초대전은 청주 문화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청주시립예술단 합동공연 <거발환>

4개의 청주시립예술단(교향악단 · 합창단 · 국악단 무용단)이 6월 14일과 15일 저녁 7시 청주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특별 합동공연을 가졌다. 공연작품은 단군자손을 주제로 한 창작곡 <거발환>으로 전통음악의 맥을 바탕으로 서구적 표현기법을 시도한 곡이다. 테마곡은 한운사 작사, 이병욱 작곡의 <빛이 보인다>와 신용운 작사, 이병욱 작곡의 <달랜다>로 장르의 넘나듬을 보여주는 크로스오버와 음악영역을 넘어선 퓨전음악을 접목해 총체예술로 꾸몄다. 총 4막으로 구성된 <거발환>은 1세 환웅의 이름을 상징하는 천지인을 하나로 정한다는 뜻으로 광명과 깨달음의 비전의식을 담고 있다.

제1막은 <암연>. 20세기의 오류, 첨단 과학문명에 따른 부작용과 인간성 상실, 황폐해진 자연 등이 기본 내용으로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는 한이다. 현대적 음향기법을 도입한 것이 주목할만 하다.

제2막은 <상흔의 구애>, 구천을 떠도는 잔형들이 천상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의식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제3막은 <상생>, 매향의식이란 전설적인 의식을 현대적으로 경건함과 중후함을 표현했다. 휘모리장단과 서양 타악기의 조화로운 리듬과 랩을 가미한 것이 특징이다.

제4막은 <광명>, 동서양 음악의 어울림을 통하여 공존공영의 조화로움을 다지는 내용이다.

합동공연의 연출을 맡은 신용원 청주대 교수는 "거발환은 기존 전통 순수장르에서 보여준 형식을 탈피해 새로운 트랜드를 시도한 공연"이라며 "구시대의 얼룩진 과거를 청산하고 새천년의 밝은 미래와 희망을 담았다"고 말했다.

『제10회 충북무용제』

『제10회 충북무용제』가 6월 20일 저녁 7시 청주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쳐졌다. 충북 무용협회 주최로 열린 이번 무용제에는 노현식무용단의 <오래된 알 11>, 류석훈무용단의 <더블웨이>, 이옥란무용단의 <불안정> 등 3개 팀의 공연이 무대에 올려졌다.

축제형식으로 선보인 이번 무용제는 소재와 표현방식에서 구애받지 않은 젊은 춤꾼들이 다수 참여해 기량면에서 볼거리를 제공했다.

노현식무용단의 <오래된 알 11>은 사람과 하늘

과 땅이 만나는 제의식을 일월맞이를 통해 표현해 자연과 인간존재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끼게 했다. 어둠을 극대화 하면서 또다른 선명한 빛이 구도가 나오듯 선 굵은 이미지 작업을 보여줬다. 류석훈무용단의 <더블웨이>는 남녀가 길을 따라 꿈과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강렬한 신체언어, 추상적 움직임과 춤사위로 내용을 전달했다. 현대춤의 에너지 있는 동작을 끌어낸 강한 이미지로 작품 속 테마를 육화된 몸짓언어로 펼쳐보였다. 바이올린과 피아노 등 현악기 연주곡으로 구성된 피아졸라의 음악이 클래식하고 고전적이어서 춤을 서정적으로 이끌었다.

청주대와 경희대를 나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류석훈은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면서 춤의 영역을 넓혀온 젊은 춤꾼 이윤경과 듀엣으로 앙상블을 이뤘다.

이옥란무용단의 <불안정>은 현대인의 소외된 외로움을 그린 작품으로 현대의식, 관점, 방향감각의 상실 등 삶에서 부딪치는 것들에서 오는 긴장과 이완을 표현했고 무대의 소품을 과감히 삽입하면서 균형있는 춤을 보여줬다.

아르모 신포니에타 창단연주회

아르모 신포니에타 창단연주회가 6월 4일 저녁 7시 청주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번 연주회는 청주 대전 천안 성남 등 중부권 지역의 음악인들로 최근 창단된 음악회 소리누리 회원들 가운데 관현악 전공자들이 마련한 음악회이다. 아르모 *Armo*란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로 협주곡과 컴퓨터 음악 등이 앙상블을 이뤘다. 연주 곡목은 이근래의 지휘로 아르모 신포니에타가 베르디의 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중 서곡을 들려줬다. 이어 오르간의 이현주가 헨델의 <오르간 협주곡>을 연주했고, 이옥희(피아노) 장윤라(피아노)가 프란시스 플랑크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을, 이재향(피아노) 박상은(바이얼린) 박태영(첼로)이 베토벤의 <피아노 바이얼린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삼중협주곡>을 협연했다.

또 메조소프로나 원순일이 김동환 곡 <그리운 마음>, 비제의 오페라 칼멘 중 <하바네라>를, 테너 전인근이 프로티스의 <넌 왜 울지 않고>를, 소프라노 장은주가 창작가곡 김성배 곡 <생시에 못 뵈올 님>을, 정가건 곡 <바람 111>을 들려줬다. 음악학회 소리누리 이래근 회장은 "지역 음악회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중부권에서 활동하는 연주자들을 중심으로 창단했다"며 "청주를 비롯해 대전 천안 성남 등지에서 순회 연주를 기획하고 객원연주자를 초빙해 다양한 연주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전북 소식 ::

김 은 정 | 전북일보 기자

전주에서 시작되는 서예의 새로운 물결
-『제1회 세계 서예전북비엔날레』

문자예술 '서예'의 새로운 물결이 전주에서 시작된다.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 실험정신이 충만한 수작

들이 출품된『제1회 세계 서예전북비엔날레』기념공모전 입상작이 발표됐다.

공모전 사상, 이례적으로 작품형식과 규격의 파괴를 시도해 관심을 모았던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1천30점의 높은 출품율을 보였으며 대상에는 한글 전각과 한글 서체를 조화시킨 <부모은중경구>의 장세훈이 대상의 기쁨을 안았다. 이밖에도 각 부문 우수상은 유경숙 김숙희 김은희 최진형 황외성이 선정됐다.

기존의 공모전과는 달리 전통성과 함께 실험정신을 내세웠던 이번 공모전은 당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내는 신선한 실험작들이 대거 출품돼 한국서단에 새로운 성과를 안겼다.

"새롭고 기발한 작품의 형상성이 주저함없이 발현된 작품, 강기있는 필획과 결구를 보인 예서, 서예의 가장 큰 특징인 먹의 세계를 과감하게 떨쳐 버린 빛깔있는 자형과 바탕의 시도 등의 호평이 이어진 이번 공모전은 한국 서예의 방향을 제시한 ' 시각성의 큰잔치 '였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평이다.

"예술의 시작과 끝이 변화와 개성의 과정을 통해 자기만의 예술세계를 창출할 때 비로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고 밝힌 심사위원들은 "그런 점에서 이번 세계 서예전북비엔날레 기념공모전에 출품된 한문서예, 한글, 문인화, 전각, 현대서예 작품은 작가들의 모든 기량이 총망라된 작가의 이상을 펼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기에 충분했다"고 밝혔다.(심사위원-변요인 김기동 박종회 양택동 전명옥 전진원 최민렬)

심사위원들이 한결같이 호평과 공모전의 의미를 높이 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심사위원장 변요인(邊堯寅)은 " 그동안 한국서예가 지나치게 법고에만 얽매여 창신의 의미를 제대로 발휘해내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번 공모전은 창신의 의미를 보다 새롭게 부각시키면서 한국 서예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공모전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는 실험성과 함께 작가적 역량을 갖춘 출품작들의 면면으로부터 얻어진 것. 특히 눈길을 모았던 것은 출품작가들 중 대한민국서예대전의 초대작가는 물론, 이미 기성작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이 대거 참여했던 점이다. 이들은 실험정신이 돋보이면서도 법첩에 근거한 서예의 바탕을 탄탄하게 다진 역량으로 첫회 공모전의 위상을 높였다.

부문별로는 한글과 전각이 돋보였던 것에 비해 출품률이 낮았던 해서와 행초서, 문인화 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해 열세를 보였다.

이번 공모전 입상작에는 상금(대상 5백만원, 우수상 각 1백만원)과 함께 서예비엔날레 각종 전시회에 초대작가로 선정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입상작 전시는 10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열린다.

북까페 갖춘 문화공간 전주에 첫 선 보여
- 개관기념 작가 은희경씨와의 대화 마련

전주 도심에 새로운 문화공간이 문을 열었다. 소설가 양귀자가 운영하는 홍지서림이 서점 지하 50여평에 북까페 등을 갖춘 ' 홍지문화공간 '을 마련해 6월 16일 오후 5시 개관식을 가졌다. 공간 개관을 기념한 첫 자리에는「마이너리그」의 작가 은희경이 ' 작가와의 대화 '로 전주의 독자들과 만났다.

홍지문화공간은 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선보


전주시립국악단 공연


홍지문화공간

이는 휴식공간인 '북까페'와 30여평의 이벤트홀을 갖추고 있다. 이미 지난 2일 문을 열고 간단한 음료와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북까페는 벌써부터 지역 작가나 예술가들이 모여 '문화예술인의 사랑방'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벤트홀은 각종 문화강좌와 작은 음악회, 시낭송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게 된다. 이를 위해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는 짝수 달과 홀수 달로 나눠 각각 '작가와의 대화'와 문화예술 전문가를 만나는 '우리시대 문화읽기'가 열린다.

일반관객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영화 1백편을 모아 매주 수요일마다 한 편씩 상영하는 '온고을 영화마당'도 이곳에 자리를 편다. 특히 지역예술인들을 위해 비영리목적의 문화행사에는 무료로 공간을 제공한다.

홍지문화공간은 2년 전 홍지서림을 인수한 소설가 양귀자씨가 안도현 이병천 등의 후배들과 함께 뜻을 모아 재정을 부담해 마련했다. 운영은 안도현 이병천 등의 문학인들이 맡게된다.

전주의 찬란했던 역사 되짚기
- 전주시립국악단 1백회 정기공연

전주시립국악단의 1백회 정기연주회를 기념한 '호남제일문'이 6월 13일과 14일 오후 7시30분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렸다.

1백회를 맞는 기쁨과 함께 시립국악단이 던지는 화두는 호남제일문으로 상징되는 전주와 전북의 찬란했던 역사이다.

후백제의 옛도읍지인 전주는 풍성한 곡창지대를 에두르고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자부심이 충만했던 고장이다. 전주시립국악단은 전주의 문화와 역사적 전통을 음악으로 형상화한 작품들로 이 무대를 채웠다.

그동안에도 지역 예술인들을 모아 창작품 발표

활동을 주도해온 시립국악단은 이 무대에서도 지역의 문인과 음악인들의 만남을 통한 창작곡을 올려 관심을 모았다. 모두가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것들이다.

후백제시대와 동학을 거쳐 오늘에 이르는 전주의 역사를 형상화한 시가 성악곡과 기악곡, 판소리로 엮어져 발표된 이번 무대는 특히 지역의 국악인들과 대학생 고등학생 전공자들을 모두 아우르는 대형무대로도 화제가 됐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13일 고려시대 음악양식을 빌려만든 <호남제일성>(작시 김남곤 작곡 심인택) 수악절 창사(隨樂節 唱詞)였다. 우석대 국악과 학생 1백여명이 참여한 이 무대는 그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시도였다. 이밖에도 삼도농악가락을 가야금과 거문고 2중주로 표현한 <줄소리>(작곡 최상화), 정재 춘앵전에 창작시를 새롭게 작곡하여 조화시킨 <완산별곡>(작시 짐동규 창사 장재환), <남도굿거리>와 <살풀이춤>, 대학생 60여명이 참가하는 <남도민요>, 전주의 삶을 대취타와 함께 입체관현악으로 만든 서곡 <풍남문>(작곡 김선), 호남좌도 풍물에 의한 춤곡 <갠지갱>(작곡 이화동), 국악과 학생 60여명이 판소리합창을 통해 전북의 넓은 들을 노래하는 <바람아 완산칠봉 바람아>(작시 안평옥 작곡 백성기), 피아노와 사물놀이를 위한 협주곡 <짝두름>(작곡 김삼곤), 그리고 소프라노 이은희와 판소리 김민영, 전주시립합창단이 한 무대에서 특별한 화음을 엮어내는 칸타타 <호남제일문>(작시 진동규 작곡 지성호) 등이 이어졌다. 김완주 전주시장이 집박을 맡아 무대를 연 것도 특별한 퍼포먼스였다. 이번 공연을 통해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해낸 시립국악단은 앞으로도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창작작업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남 소식 ::

임 미 희 | 전남일보 기자

전국무용제에 박금자무용단 <인간게놈 프로젝트> 참가선정


<만약 피에 주린 자가>

광주 박금자발레단의 창작발레 〈인간게놈 프로젝트〉가 오는 9월 천안학생회관에서 열리는 전국무용제에 광주대표팀으로 참가한다.

한국무용협회 광주시지회가 지난 6월 14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전국무용제에 광주대표팀으로 출전할 공연팀을 가리는 제10회 광주무용제에서 박금자발레단의 〈인간게놈 프로젝트〉가 대상을 수상해 전국무용제에 참가하게 됐다.

이날 무용제에는 박금자발레단의 〈인간게놈 프로젝트〉와 한국춤연구회의 〈상실〉, 광주현대무용단의 〈여덟번째 단상〉 등 세 팀이 출전해 전국무용제 출전 티켓을 놓고 경연을 벌였다.

대상을 수상한 박금자발레단의 〈인간게놈 프로젝트〉(안무 김정미)는 인간 복제가 지닌 문제점을



<돼지 사냥>



<인간계놈 프로젝트>

부각시켜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과학적 믿음이 얼마나 미약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지를 되짚어 본 작품. 박금자발레단에서 활동하는 쟁쟁한 발레리나 · 발레리노들이 출연해 기량을 선보였다.

한국춤연구회의 〈상실〉(양나나 안무)은 급변해 가는 세상 속에서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상실해버린 자아를 찾기 위한 몸부림을 표현한 작품으로 조애라 방은실 이지은 박누리 김유리 김숙희 김희선 등 20여명의 무용수가 출연해 역동적인 무대를 선사했다.

광주현대무용단의 〈여덟번째 단상〉(이숙영 안무)은 삶에 대한 허무, 그래도 견디어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 등을 춤사위로 형상화한 작품으로 최유경 백난희 설은주 이경화 김미선 유길호 등이 출연했다.

심사를 맡은 송원전문대 정혜경 교수는“ 발레라는 장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 인간복제 ’라는 과학적 소재를 발레의 춤사위로 적절하게 형상화해 낸 데다 출연 무용수들의 고른 기량이 돋보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박금자발레단은 지난 1999년에도 광주대표팀으로 전국무용제에 출전, 창작발레 <가을>을 선보여 호평을 받은 바 있고, 한편 남 · 여 연기상은 <인간게놈 프로젝트>에서 주연 무용수로 활약한 공병태와 박선희에게 각각 돌아갔다.

광주의 오랜 침묵을 깬 두 극단의 공연

지역 연극계의 오랜 침묵을 깨고 여름 초입에 광주지역의 두 극단이 나란히 작품을 올리고 있다. 광주 지역의 대표적인 극단 토박이와 청춘이 정기공연으로 지난 6월 21일부터 민들레소극장과 연바람소극장에서 각각 7월 1일과 7월 8일까지 정기공연에 들어갔다.

극단 토박이는 도전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 세상을 뒤집어 보는 연극 세편 ’을 테마로 <만약 피에 주린 살인자가> <달이 떠오를 때> <거울> 등 단편 3편을 한무대에 올리고 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과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진지하게 성찰해보자는 게 기획의도이다.

극단 토박이 대표인 신동호가 연출을 맡았으며, 극단의 대들보 연기자인 박정운 나창진 강진희 임해정 김현승씨 등이 출연해 개성연기를 펼쳐보였다.

<만약 피에 주린 살인자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죽음의 가치가 전도돼버린 사회 풍자를 통해 생명의 의미와 과학문명의 양면성을 파헤친 작품이다.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미래사회, 군 당국은 첨단의학을 활용해 죽은 병사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는데 군법 규정에 의해 마지막 네번째 죽음을 맞이한 병사가 실수로 되살려지면서 갖은 방법을 동원해 죽으려고 몸부림친다는 얘기가 줄거리를 이룬다.

<달이 떠오를 때>는 민족해방을 위해 싸우는 사람과 이를 잡아야 하는 사람 사이의 갈등과 우정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과 인간성 회복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작품이다.

<거울>은 우리가 고정불변이며 진실이라고 믿는 것들이 과연 모두 진실일까를 되묻고 있다. 거울의 그림자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거울속 1 · 2 · 3이 어느날 거울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되며 심각한 갈등에 빠진다는 얘기가 줄거리를 이룬다.

극단 청춘의 <돼지사냥>(이행원 연출)은 시골의 한 마을을 배경으로 헛된 욕망을 좇는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그린 작품이다.

돼지가 주민의 생계수단인 서부리마을. 어느날 돼지네 할매집의 주요 수입원인 300근이 넘는 씨돼지가 사라지고, 같은 시간에 ‘ 돼지 ’라는 별명을 지닌 할매의 막내아들이 탈옥하는 두 사건이 극의 얼개를 이룬다. 서로 다른 ‘ 돼지 ’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통해 인간의 헛된 욕망, 재물과 성과 권력을 좇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극중 등장 인물의 독특한 성격과 유희, 과장된 동작 등이 어우러지며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